

【논 문】

만주 시절의 백석과 현대성 비판*

김 재 용**

┃ 차 례 ┃

1. 백석의 만주행과 ‘북방’으로서의 만주
2.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에 대한 비판
3. 제국주의 현대 비판
4. 결론

국문초록

제국주의적 현대가 전지구를 지배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백석은 ‘북방’으로서의 만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북방으로서의 만주는 현대제국주의는 물론이고 농경정착이 정주하기 이전의 소박한 인간의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일본 제국의 내선일체의 억압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는 것과 아울러 북방으로서의 만주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만주행을 선택한다. 하지만 만주국이 지배하던 만주를 만나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오족협화’의 만주국이 일본 제국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실망한 백석은 만주국의 국무원의 자리를 그만두고 만주의 별관을 향해 갔다. 하지만 만주 별관과 밀림 역시 과거의 소박한 삶이 영위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는 곤혹스러움에 빠지게 된다. 밀림 역시 제국주의 현대성이 서서히 장악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현대성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은 만주의 밀림에서도 끝나지 않는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적 현대성에 대한 백석의 날카로운 비판은 만주 시절 백석의 삶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만 보는 것이라든가, 제국주의 현대성에 대한 비판

* 이 논문은 2012년도 원광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만 읽어내는 것은 만주 시절 백석의 문학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 둘에 대한 동시적 비판을 함께 읽어낼 때 비로소 해방전 백석의 문학과 해방후 백석의 문학을 연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만주국, 백석, 오족협화, 현대성, 순수성, 제국주의, 저항

1. 백석의 만주행과 ‘북방’으로서의 만주

1939년 백석은 서울을 떠나 만주 신경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작활동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백석의 삶과 문학에서 새로운 단계라고 할 정도로 이전과는 매우 달랐다. 백석은 만주에서 근 10편이 넘는 시를 발표하고 여러 소설들을 번역할 정도로 열심히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1936년 서울을 떠나 만주 신경에서 만선일보 일을 하였던 염상섭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창작적 성과를 낳지 못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백석의 이러한 지속적인 활동은 매우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백석은 왜 만주로 이주한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내선일체’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1939년 무렵은 1936년부터 시작된 ‘내선일체’가 사회 전반에 걸쳐 부각되던 무렵이다. 특히 문학을 비롯한 문화계에서는 1939년초부터 ‘내선일체’의 억압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강하였다. 1938년 10월 무한 삼진의 함락으로 일본은 중국의 본격적인 지배에 나서게 되었고 자신감을 가졌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은 타이완, 조선을 넘어 중국을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중국 인민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순조롭지 않았다. 하지만 무한삼진의 함락 이후에 대부분의 중요한 연안 도시를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되면서부터는 중국의 지배를 실질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일본 제국은 조선에서 이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지배를 강화하였는데 문학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문제는 조선어의 말살이었다. 그 동안 학교에서 조선어를 비록 수업시간수

로는 일본어에 뒤치지만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통학교 학생들은 조선어를 배웠다. 하지만 1938년 4월부터 시행된 제3차 조선교육령으로 인하여 조선어는 이제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어졌다. 선택과목이 되는 순간 조선어는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는 조선어를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는 존립의 기반을 없애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1939년부터는 모든 작가들에게 국가의 일에 부역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국가에 대한 부정이나 체제에 대한 비판만 금지할 뿐이었지 작가들에게 무엇을 쓰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39년 이후부터는 국책에의 부응이란 이름으로 작가들에게 국가의 사업을 선전하는 일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비국민’이란 이름을 붙여 사회에서 추방하는 방식으로 작가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일본 제국에 비판적인 작가들의 경우 이러한 억압적인 요구에 맞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백석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이 글을 포기하거나 내적망명 상태로 접어들거나 아니면 바깥에서 출구를 찾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백석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주행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작가들의 만주행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일본 제국의 ‘동아신질서’ 논리와 ‘대동아공영권’ 논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만주를 여행하거나 이주한 경우이다. 당시 1938년 무한 삼진 함락 이후 일본 제국은 ‘동아신질서’를 표방하였는데 만주는 그 핵심 중의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선전활동을 하였다. 1940년 10월 이후 일본 제국이 ‘대동아공영권’으로 확대되면서 만주는 ‘북방공영권’의 일환으로 더욱 큰 관심을 얻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국적 경향을 좇는 이들이 하나의 부류로 자리잡았다. 다른 하나는 ‘오족협화’를 활용하고자 하던 이들이다. 당시 일본 제국은 ‘만주국’을 다종족국가로 만들기 위하여 ‘오족협화’를 내세웠는데 이는 일본의 오랜 식민지였던 조선과는 매우 달랐다. 조선에서는 ‘내선일체’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조

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힘들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만주국’에서는 조선인들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기 때문에 조선 반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다소 숨쉴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일부 조선의 문학가들은 ‘내선일체’를 피해 ‘오족협화’의 공간을 선택하였다. 백석은 바로 이 후자의 흐름 속에 있던 인물이다. ‘내선일체’를 피해 ‘오족협화’를 활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만주국’으로 갈 수 있었고 또 그곳에서 국무원 경제과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였지만 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이 만주행을 택한 이유 중의 다른 하나는 근대 이전의 만주공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다. 백석이 만주를 주목한 이유 중의 하나는 ‘북방’ 공간에 대한 관심이다. 흥안령 산맥과 아무르 강으로 대표되는 ‘북방’ 공간은 현재 한반도를 비롯하여 정착민 문화를 영위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유목민족으로 살아가던 삶의 태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있게 한 과거의 고대성이 존재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원시성이 여전히 살아있어 현대 이전의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다. 현대문명에 대해서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창작활동을 해오던 백석으로는 ‘북방’공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점으로 하여 백석은 ‘북방’공간을 주목하였고 만주행을 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만주에 가서 쓴 첫 시에 해당하는 「북방에서」에서 잘 드러난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프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의 불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쓸론이 십리길을 따라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이안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삼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 동안에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한울로 땅으로-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녀없이
 떠도는데

아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량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
 이 지나가고 없다.¹⁾

홍안령과 아무르강을 삶의 근거지로 살아가고 있는 종족인 오로촌족과
 쓸론족 등을 열거하면서 ‘북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백석
 에게 ‘북방’이란 현재 한민족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공간만은 아닌 것이다.
 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게 될 때 ‘북방’이란 것을 한민족의 원류
 정도로 보기 쉬운데 이는 백석의 시를 제대로 읽어내는 것이 아니다. 백석

1) 김재용 엮음, 1997, 『백석전집』 실천문화사, 115쪽.

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고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을 피해 만주로 올 정도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의 입지가 내셔널리즘 그 자체는 결코 아닌 것이다. ‘앞대’와 대조되는 ‘북방’은 정착문명을 이룩하고 이후 공업화의 현대성으로까지 나아간 이들이 현재에는 잃어버렸지만 과거에는 간직하였던 삶의 방식과 공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내셔널리즘적 차원에서 보는 것은 편협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백석이 내셔널리즘의 상상력을 펼치려고 하였다면 오로촌이나 쓸몬과 같은 종족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또한 거란의 요나 여진의 금에 대한 언급 역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북방’이란 현대문명 이전의 삶에 대한 공간적 은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백석은 ‘내선일체’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만주를 향하였고, 현대문명 이전의 삶으로서의 ‘북방’을 회복하기 위하여 만주를 선택하였다. 전자가 일본 제국의에 대한 전면적 비판이었다면, 후자는 제국주의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만주행의 실질적인 동기였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만주 시절의 백석을 살펴보겠다.

2. ‘내선일체’와 ‘오족협화’를 강요하는 일본 제국에 대한 비판

1939년 만주 신경으로 이주한 백석이 일본 제국이 주도하는 ‘만주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 분명하다. 이 시기에 쓴 몇 편의 시들이 당시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창구이기는 하지만 산문이 아니고 시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한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신경에서 발행되고 있던 만선일보에 실린 한 좌담은 당시 백석의 내면과 지향을 밝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좌담 참석자들 중에는 백석과 같이 조선에서 건너간 작가만이

아니라 만주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일본인 작가와 중국인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당시 ‘만주국’ 전체의 문화적 분위기와 그것에 대한 백석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1940년 4월 만선일보에 실린 이 좌담회는 이전 만주의 조선인 문단에서는 찾기 힘든 매우 특이한 일이었다. 첫째로 재만조선인 문학계의 독자성에 대한 자기 인식이다. 이전에는 만주의 조선인문학계는 조선반도의 연장에 불과하였다. 강경애의 사례에서 아주 잘 드러나는 것처럼 무대만 간도나 만주로 확장되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문단의 확장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무렵에 오면 조선문학의 연장이 아니고 재만조선인 문단의 독자성에 대한 강한 요구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 ‘북향’이란 이름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만주의 독자적인 조선인 문학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고 특히 젊은 작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939년 이후 조선반도 내의 문학계가 ‘내선일체’의 강요와 시국적인 협조에 대한 억압으로 인하여 침체하게 되면서 백석 등의 작가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되자 더 이상 서울이 중심으로 작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리면서 재만조선인문학의 독자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져 갔고 박팔양을 비롯한 만선일보의 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이러한 좌담회가 성립하게 된 것이다. 이 좌담회가 갖는 두 번째 특징은 동아시아 작가들 내부의 교섭이다. 그 동안 ‘만주국’ 문단에서 조선인 작가들은 중국인 작가와 일본인 작가와 아무런 교섭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이 무렵에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재만조선인 문학의 독자적인 추진을 해나갈 수 없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만선일보는 일본인 작가와 중국인 작가를 초청하여 이러한 좌담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일본인 작가들을 참석시킨 것은 조선인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만주국에서 ‘오족협화’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은 조선인들을 일본인으로 간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는 조선인이 조선인이자 결코 일본

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좌담회에 참석한 동아시아 작가들의 면면을 살피는 것은 이 무렵 백석의 위치를 가늠함에 있어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인 작가로는 협화회 홍보과 소속으로 출석한 시인 박팔양, 국무원 경제부 소속으로 출석한 시인 백석, 방송국 소속으로 출석한 극작가 김영팔, 일본인들의 단체였던 만주문화회 소속으로 출석한 이마무라 에이지, 그리고 만선일보 소속으로 출석한 이갑기이다. 일본인으로는 만일문화협회상무주사로 출석한 杉村勇造, 신경 일일신문사 소속으로 출석한 大内隆雄, 만주문화회 소속의 吉野治夫, 그리고 협화회 소속의 仲賢禮이다. 만주계 작가로는 민생부 소속의 爵靑, 만일문화협회 소속의 陳松齡이다. 이들이 모여서 한 좌담회 중에서 다음 대목은 백석의 당시 태도와 내면을 읽는데 있어 매우 소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좌담회에서 백석은 한 마디만 물을 뿐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세 나라의 작가들이 말하는 것을 마냥 듣고만 있었다. 그것은 이들이 행하는 발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놓고 이를 이야기하기에는 당시의 정치적 정황 등으로 인해 적절치 않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백석은 이 좌담회에서 어떤 점을 못마땅하게 여겨올까? 이를 짐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다음 좌담회의 대목을 잘 읽어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吉野治夫 : 어쨌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조선인 작가들이 너무 일본문 창작에도 등한하며 번역만 하더라도 힘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만주만 하더라도 조선인 작가 자신들이 먼저 나와야 자기들의 문학을 번역하여 소개할 노력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까지든지 만주문화계에서 조선문학에 대한 기회가 적지 않겠소.

박팔양 : 이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상호연락의 부족으로 그렇겠지요. 조선인 작가도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바가 아니니까요.

爵靑 : 우리들로서도 조선문학을 대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만인이 조선말을 모르고 따라서 일본인도 그러니 이점 조선인 작가 손수 자기 작품을 일문으로 소개한다면 만인작가들도 일문만 잘 해석하니

만문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영팔 :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주문화계 말하자면 만일문화협회나 만주문화회에서 그런 번역을 알선할 호의가 있습니까.

彬村勇造 : 호의가 무엇입니까. 만일문화협회는 만주국의 각 민족이 민족 별을 초월한 국가기관이니 그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仲賢禮 : 그 전에 신경에 소성이란 선계문화인이 있었는데 그 분도 아직 여러 가지 유의한 활동을 하였으나 조선의 문단이나 문화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소개가 없으니 그것은 어쩐 일인가.

이갑기 : 조선문단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겠조.

박팔양 : 그런 사람이 많지요. 원체 문단이란 것이 특수 세계인 만큼 그 조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소개할 만큼 깊은 지식을 갖는 것이 어렵겠조.

彬村勇造 : 요컨대 만주에서 조선작가들의 활동이 적은 것은 역시 선계 작가의 태만이나 오해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이마무라 군도 아주 훌륭한 선계라도 지금 ‘만주낭만’ 등에 우수한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개인의 희망으로도 조선 작품을 읽고 싶어요.

이갑기 : 그야 작가란 자기의 작품을 한 사람이라도 많이 보여주게 되면 그만큼 문학을 통한 자기확장이 되니 싫다고 할 이유는 없지요. 이것은 일 개인이나 일 집단을 통해서도 다름 없겠지요.

彬村勇造 : 그러니 많이 활동할 필요가 있지요.

김영팔 : 그러면 이 다음부터 이것을 기회로 많이 교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²⁾

이 좌담회에서 일본인 작가와 중국인 작가들이 조선인 문학을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일본인 작가들은 조선인 작가들이 일본어로 창작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마무라 에이지가 이 좌담회에 참석한 본질적인 이유를 일본인 작가 彬村勇造가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마무라 에이지는 조선인 출신이지만 일본인 작가로 일본어로 창작하고 있는데 이를 본받아 조선인 작가들도 일본어로 창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조선인 작가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조선인 작가를 일본인 작가로 동

2) 『만선일보』, 1940년 4월 8일.

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좌담회에 참석한 이들도 동의의 뜻을 표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하지만 백석으로는 참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조선에서 강요되고 있는 ‘내선일체’가 싫어 만주로 왔는데 여기서도 일본인들이 ‘오족협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내선일체’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백석은 분명 화가 났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 백석은 일본어로 창작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글로 창작을 했음에도 잘 드러난다. 또한 백석은 이후 만주의 조선인들이 엮은 선집 등에 작품을 실지 않는 방식으로 이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였다. 백석이 보기에 이 좌담회에 참석한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오족협화’를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모임을 조직하는 조선인 작가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오족협화’를 활용하여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백석으로서는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무원의 경제부를 그만두고 일본 제국의 힘이 닿지 않은 곳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이 만주 땅의 주인인 중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지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시가 바로 국무원을 그만두고 신경 주변에 위치한 백구촌이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노래한 「귀농」이다.

백구촌(白狗屯)의 눈 녹이는 밭 가운데 땅 풀리는 밭 가운데
 촌부자 노왕(老王)하고 같이 서서
 밭최뚝에 즈부러진 땅벼들의 벼들개지 피어나는 데서
 별은 장글장글 따사롭고 바람은 술술 보드라운데
 나는 땅임자 노왕한테 석상디기 밭을 얻는다

노왕은 집에 말과 나귀며 오리에 닭도 우울거리고
 고방엔 그득히 감자에 콩곡식도 들여 쌓이고
 노왕은 채매도 힘이 들고 하루종일 백령조(白翎鳥) 소리나 들으려고
 밭을 오늘 나한테 주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귀치 않은 측량(測量)도 문서(文書)도 싫증이 나고
 낮에는 마음놓고 낮잠도 한잠 자고 싶어서
 아전 노릇을 그만두고 밭을 노왕(老王)한테 얻은 것이다

밭은 쟁쟁 좋기도 좋은데
 눈도 녹으며 술렁거리고 버들도 잎트며 수선거리고
 저 한쪽 마을에는 미뚝에 닭 개 증생도 들떠들고
 또 아이 어른 행길에 뜨락에 사람도 웅성웅성 흥성거려
 나는 가슴이 이 무슨 흥에 벅차오며
 이 봄에는 이 밭에 감자 강냉이 수박에 오이며 당콩에 마늘과 파도 심그
 리라 생각한다

수박이 열면 수박을 먹으며 팔며
 감자가 익으면 감자를 먹으며 팔며
 까막까치나 두더쥐 뚝벌기가 와서 먹으면 먹는 대로 두어두고
 도적이 조금 걸어가도 걸어가는 대로 두어두고
 아, 노왕(老王), 나는 이렇게 생각하노라
 나는 노왕(老王)을 보고 웃어 말한다

이리하여 노왕(老王)은 밭을 주어 마음이 한가하고
 나는 밭을 얻어 마음이 편안하고
 디떡디떡 눈을 밟으며 터벅터벅 흙도 덮으며
 사물사물 햇볕은 목덜미에 간지로워서
 노왕(老王)은 팔장을 끼고 이랑을 걸어
 나는 뒷짐을 지고 고랑을 걸어
 밭을 나와 밭뚝을 돌아 도랑을 건너 행길을 돌아
 지붕에 바람벽에 울바주에 별살 쇠리쇠리한 마을을 가리키며
 노왕(老王)은 나귀를 타고 앞에 가고
 나는 노새를 타고 뒤에 따르고
 마을끝 충왕묘(蟲王廟)에 충왕을 찾아뵈려 가는 길이다
 토신묘(土神廟)에 토신도 찾아뵈려 가는 길이다³⁾

3) 앞의 책, 122~124쪽.

더 이상 땅을 경작할 여력이 없는 중국인 지주에게서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것이기에 시적 화자는 소작인의 처지이기도 하지만 혼한 지주와 소작인의 위계가 작동하는 그러한 관계는 아닌 것이다. 중국인 지주는 자신이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을 조선인에게 주어서 마음이 편안하고, 조선인 시적 화자는 필요한 땅을 얻어 마음이 편안한 것이다. 지주와 소작인의 위계, 그리고 중국인과 조선인의 종족적 구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어 가지는 공존의 관계이기에 경제적으로도 종족적으로도 거기에는 차별이 개입할 공간이 없는 것이다. 차이만 존재할 뿐이지 차별은 없는 세계인 것이다.

‘만주국’의 아전 생활을 그만두고 농촌으로 삶의 근거를 옮긴 데에는 당시 ‘만주국’ 내의 일본인들과 이들에 기생하여 살아가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 이외에 당시 신경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실망도 한 몫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이 만선일보에 쓴 산문 중의 「조선인과 요설-서칠마로 단상의 하나」⁴⁾은 당시 신경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강한 비판을 담고 있어 흥미롭다.

조선인이 스스로 말하여 천만가지 자랑이 있다 한들 헛된 말이다. 먼저 있을 것은 자랑과 희망이 아니다. 무엇인가. 근신과 분노와 비애다. 심각한 고통이다. 이것들이 조선의 혼을 꼭 붙잡는 것이다. 조선인이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들이 요설인 동안 이것은 거짓말이다. 조선인에게서 광명이 조요(照耀)하는 것이다. 하나 이것에 감격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인지는 모른다. 그들이 요설인 동안 누가 이것을 거짓말이라 할 것인가. 비록 몸에 남루를 걸치고 굶주려 안색이 창백한 듯한 사람과 민족에 오히려 천근의 무게가 없을 것인가. 입을 다무는데 있다. 입을 다물고 생각하고 노하고 슬퍼하라. 진지한 모색이 있어 더욱 드러날 것이요, 감격할 광명을 바라보아 더욱 그러할 것이다.

www.kci.go.kr

4) 『만선일보』, 1940년 5월 25~26일.

이 글의 부제인 서칠마로(西七馬路)는 당시 신경의 한 지역으로 조선인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곳이다. 朝日通 梅枝町을 포함하고 있는 이곳은 조선인들이 신경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살던 지역으로 당시 신경 사회의 조선인의 부정적인 양태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할 정도였다. 만선일보는 조선인으로서의 부끄러운 면모를 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낼 정도였다.

조일통(朝日通)은 다른 유명한 것들이 많지만 누구든지 신경에 한번 가보았던 사람이라면 조일통이 조선인촌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으리라. 이곳은 조선인협회분회인 계림분회의 2층 고루를 중심으로 벌어진데 그제 그리 상서롭지 못한 모양들이다. 어느 곳을 가도 대도의 양편에 버젓하게 큰 집을 가지고 빼기지 못하는 것은 이곳에서도 다르지 않다. 조일통이라 해도 그 양편에 조선사람이 상포를 가진 것은 헤아릴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 종로 뒷골목 청진동 모양으로 한 걸음 뒤쪽의 거리로 들어가면 만주인 집의 킁킁한 구멍마다 흰웃이 덜렁거리고 얼굴이 이상야릇하게 분칠을 한 계집아이와 함께 양산도와 장고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으레 저녁이 되면 그런 거리에는 젊은 친구들이 팔도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발자취를 비틀거리며 문 앞에 앉은 계집아이에게 비치듯거리고 지나간다. 이것이 소위 ‘매지정 풍경’이다. 조선 사람 사는 곳이 다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외지에서 온 사람이 신경에서 조선 사람 사는 곳을 안내하라고 하여 끌고 올 때 우리가 가장 얼굴이 화끈거리며 데리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곳이다.⁵⁾

백석이 굳이 서칠마로라고 구체적인 지명을 밝히면서 조선인들의 요설을 비판한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나라를 잃은 조선인들이 고통과 비애 속에서 살아가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색주가에서 자신의 분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했을 것이다. 예들러 표현하였지만 당시 신경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실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신경을 떠나 농촌으로 떠난 것이 아

5) 『만선일보』, 1940년 9월 20일, 김경일 외,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2004)에서 재인용.

닌가 한다. 일본 제국의 억압과 조선인들의 자기 상실로 인하여 백석은 다른 삶을 모색하였고 그것이 바로 「귀농」에서 드러나는 농촌 이주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주국’의 자장에서 벗어나 가난한 시인으로 살기로 결심한 백석은 이후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자세를 노래한 시와 만주의 오랜 주인인 중국인과의 교섭과 연대를 노래한 시를 발표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시가 「흰 바람벽이 있어」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시가 「조당에서」이다.

「흰 바람벽이 있어」는 만주의 외딴 방에서 혼자 쓸쓸히 살아가는 자신의 견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만주국’ 공무원의 노릇을 그만두고 체제에 협력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은 이 외딴 방을 선택하였다.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외로워지고, 통영에서 아이와 남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옛 애인을 떠올리면 더욱 외로워지고 슬프진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을 꺾어 가면서 살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기로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준비를 했던 이 소박한 생활이기에 마음 한 구석에서는 뜨거운 높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다. 쓸쓸함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높고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패배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십오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사쓰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
지 외로운 생각 이 헤메인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 흰 바람벽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
추를 썰고 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구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려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네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⁶⁾

‘만주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대지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백석이 이 시기에 추구하는 바 중의 하나는 중국인과의 공존이다. 일본 제국이 ‘동아신질서’와 ‘대동아공영권’의 이름 하에 조선인을 일본인처럼 대하고 중국인을 제국의 한 종족으로 취급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본 제국의 확장과 관리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중국인을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대하고 조선인을 다른 독립적인 나라의 백성으로 대하면서 서로 공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제국이 욕망하는

6) 앞의 책, 128~130쪽.

것과는 다른 질서를 상상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일본 제국에 저항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같은 목욕탕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이 서로 발가벗고 목욕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쓴 시 「조당에서」는 일본 제국에 저항하는 중국인과 조선인의 연대를 아주 해학적으로 잘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지나(支那)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무슨 은(殷)이며 상(商)이며 월(越)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이
 한 물통 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서로 나라가 다른 사람인데
 다들 쪽 발가벗고 같이 몸에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은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제각금 틀리고 먹고입는 것도 모두 다
 른데
 이렇게 발가들 벗고 한 물에 몸을 씻는 것은
 생각하면 쓸쓸한 일이다
 이 짠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마들이 번번하니 넓고눈은 킁킁하니 흐리고
 그리고 길쭉한 다리에 모두 민승민승하니 다리털이 없는 것이
 이것이 나는 왜 자꾸 슬퍼지는 것일까
 그런데 저기 나무판자에 반쯤 나가 누어서
 나주별을 한없이 바라보며 혼자 무엇을 즐기는 듯한 목이 긴 사람은
 도연명(陶淵明)은 저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여기 더운 물에 뛰어들며
 무슨 물새처럼 악악 소리를 지르는 뻬뻬 파리한 사람은
 양지(陽子)라는 사람은 아모래도 이와 같었을 것만 같다
 나는 시방 옛날 진(晉)이라는 나라나 위(衛)라는 나라에 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같다
 이리하야 어쩐지 내 마음은 갑자기 반가워지나
 그러나 나는 조금 무서웁고 외로워진다
 그런데 참으로 그 은(殷)이며 상(商)이며 월(越)이며 위(衛)며 진(晉)이며
 하는 나라 사람 들의 이 후손들은
 얼마나 마음이 한가하고 게으른가
 더운 물에 몸을 불키거나 때를 밀거나 하는 것도 잊어 버리고
 제 배꼽을 들여다보거나 남의 닳을 쳐다보거나 하는 것인데

이러면서 그 무슨 제비의 흙이라는 연소탕(燕巢湯)이 맛도 있는 것과
 또 어찌 바루 새악시가 곱기도 한 것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일 것인데
 나는 이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목숨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하
 는 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 오래고 깊은 마음들이 참으로 좋고 우러러진다
 그러나 나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글씨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쪽 받가벗고 있는 것은
 어쩐지 조금 우스웁기도 하다⁷⁾

백석은 앞서 언급한 좌담회에 참석하여 중국인 작가에 대해서 일본인 작
 가와는 다른 인식을 가진 바 있다. 중국인 작가들은 일본인 작가들과 달리
 조선인 작가들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미묘한 연
 대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인 작가들의 조선어 작품을 우회적인
 방식을 통하여서라도 읽고 싶어 하고 공감하려는 의지를 매우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일본어로 번역되면 이를 중국어로 옮기려고 할 정
 도로 강한 연대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백석으로는 중국인 작
 가와 중국인들에 대해서 만주에 와 있는 일본인 작가와 일본인들과는 매우
 다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만주에 와 있는 일본인들을 일본 제국의
 앞잡이 정도로 보는 반면, 중국인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이 만주
 지역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만남을 통
 하여 백석은 중국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공존을 모색하였
 던 것이다. 이러한 지향이 이 시에서도 잘 드러났고 있는 것이다.

‘내선일체’의 조선을 피하여 만주로 갔지만 ‘오족협화’의 ‘만주국’은 ‘내
 선일체’의 조선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일본 제국의 자장 하에 놓여 있
 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것이다. 백석은 ‘만주국’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만주 농촌의 한 귀퉁이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다. 외롭고 쓸쓸한 삶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다른 사

7) 앞의 책, 133~135쪽.

람들과 공존하는 것은 그에게 높고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었다.

3. 제국주의 현대 비판

‘내선일체’를 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백석은 굳이 만주행을 선택하였다. 만주와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가 이러한 선택을 한 데에는 특별한 배경이 존재한다. 만주로 가기 전에 그는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 지역을 여행하면서 몇 편의 시를 썼는데 이들 시에서 만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1937년에 평안도 지역을 여행하면서 ‘서행시초’를 남겼는데 그 중의 한 편이 「복신」이다.

거리에는 모밀내가 났다
부처를 위하는 정갈한 노친네의 내음새 같은 모밀내가 났다.

어쩐지 향산(香山) 부처님이 가까웁다는 거린데
국수집에서는 농작 같은 도야지를 잡아 걸고 국수에 치는 도야지고기는
뚝바늘 같은 털이 드문드문 백였다.
나는 이 털도 안 뽑은 도야지 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또 털도 안 뽑은 고기를 시꺼먼 맨모밀국수에 얹어서 한입에 꿀꺽 삼키
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가슴에 뜨끈한 것을 느끼며
소수림왕(小獸林王)을 생각한다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을 생각한다⁸⁾

향산 지역을 지나면서 과거 고구려를 연상하는 대목에서 현재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현재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는 과거 고구려 사람들의 용맹함과 광활함을 읽으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독법은 대단히 편협한 것임을 면치 못한다. 그가 고구려를 상상하는 것은 제국주의 현

8) 앞의 책, 107쪽.

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충만한 삶의 세계에 대한 상상적 복원과 같구이지 결코 내셔널리즘적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고구려와 현재의 조선의 민족을 선형적으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제국주의 현대 이전에 만주에서 거침없이 활기차게 살았던 삶에 대한 동경인 것이다. 백석은 이러한 과거를 통하여 현대의 공허함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 점은 함경도를 여행하고 난 다음 쓴 시에서도 읽을 수 있다. 함주시초의 일편인 「북관」은 백석의 만주행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이 시초는 함주를 비롯한 함경도 지역을 방문하고 쓴 것인데 평안도를 여행하면서 쓴 ‘서행시초’보다 앞선 1937년에 이미 발표된 것들이다.

명태(明太) 창난것에 고추무거리에 막칼질한 무이를
비벼 익힌 것을
이 두박한 북관(北關)을 한없이 끼밀고 있노라면
쓸쓸하니 무릎은 꿇어진다.

시큼한 배척한 귀귀한 이 내음새 속에
나는 가느스름히 여진(女眞)의 살내음새를 맡는다

얼큰한 비릿한 구릿한 이 맛 속에선
까마득히 신라(新羅) 백성의 향수(鄉愁)도 맞본다⁹⁾

함경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쓴 중에서 이 시가 특이한 것은 여진과 신라를 상상해내는 것이다. 여진과 신라는 모두 함경도 지역과 깊은 연관을 가졌던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대의 역사를 시 속에 끌어들이는 것은 그 이전의 그의 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팽창했던 신라를 상상하는 이 시에서 역사의 연속성과 일본의 식민주의가 자행하는 민족적 역사의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읽기가 쉽다. 만

9) 앞의 책, 68쪽.

약 그렇게 해석할 경우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여진에 대한 언급이다. 과거 신라와 현재 조선 종족 사이에는 일정한 선형적 연속성이 있지만 여진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민족적 저항이나 혹은 종족적 연속성을 읽어내는 것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여진을 언급한 것은 제국주의 현대 이전에 북방지역에서 활기차게 살았던 종족에 대한 강한 동경을 통하여 현재 전지구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제국주의 현대에 대한 비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앞서 「복신」에서 고구려를 상상하고 「북관」에서 신라와 여진을 복원하는 것을 제국주의 현대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읽게 되면 백석이 북방으로서의 만주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깊은 뿌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7년 무렵에 이미 이러한 시를 남겼다는 것은 1939년 말 이후의 만주행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또한 ‘내선일체’에 대한 단순 비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의 만주행은 분명 ‘내선일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제국주의 현대에 대한 강한 비판과 북방으로서의 만주에 대한 동경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주로 가기 이전에 북방에 대한 백석의 이러한 지향과 상상력이 전제될 때 비로소 백석이 왜 만주로 이주하였으며 또한 만주에서 처음 쓴 시 「북방에서」에 나오는 여러 모티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에는 흥안령과 아무르강과 오로촌족의 제국주의 현대가 스며있지 않은 북방과 제국주의 현대가 지배하고 있는 앞대를 대비시키면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국주의 현대의 물결이 북방세계까지 침투해 온 것을 보면서 비애를 느끼던 백석은 이러한 풍경을 글로 옮겨낸 작가로 만주에서 활동하던 백계 러시아인 작가 바이코브를 발견하고 그의 작품을 번역하여 조선반도 내에 소개한다. 『녹기』잡지에 러시아어로부터 일본어로 번역한 작품을 실는 한편, 조선어로 된 잡지 『조광』에 단편 「식인호」와 장편의 일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편 「밀림유정」을 번역하여 실는다. 전자가

주로 제국주의 현대가 엄습하게 이전의 원시적이고 소박한 만주의 밀림 세계를 다룬 것이라면, 후자는 제국주의 현대가 이 외진 곳까지 침투하여 소박하고 원시적인 세계가 파괴되는 것은 보여준 작품이다. 백석은 이들 작품의 번역을 통하여 제국주의 현대성에 대한 강한 비판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원시적 소박성과 제국주의 현대성의 틈바구니에서 삶이 영위되고 있는 북방의 만주는 이러한 성찰의 가장 좋은 공간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제국주의 현대성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기차이다. 기차는 만주 밀림의 목재를 외국으로 파는데 그 핵심적인 운반체이며 동시에 캘리포니아 산 상품이 이 만주에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기차에 대한 다음 묘사는 매우 상징적이다.

이것은 기관사 발레리어나 벨로제로바가 제재소에 올 때마다 언제나 있는 일인데 그는 주로 정거장으로부터 이 곳에 기관차를 가지고 뚜껑없는 비인 차판을 끌고 와서는 선로 위에 대어놓고 짐을 실게 하는 것이었다. 밤이 되어 차판에 재목이 가득 쌓여 실리우게 되면 이 행부는 정거장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만주 안의 각 시장으로나 또는 외국으로 목재는 수출되는 것이었다. 길림성은 전 만주에서도 가장 수림이 풍부한 곳이라 주요한 제재소는 이곳에 모두 집중되어 있었다. 목재는 철도가 아니고라도 강으로라도 갈 수 있으나 재목을 운반하는 데는 철도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기관이었다. 이 산업은 해를 따라 증가하는 터로 근년에는 외국시장에서 만주 목재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니 늘고 있다.¹⁰⁾

제국주의 현대가 만주의 밀림까지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이코브의 비판적 서술인데 이는 백석의 지향과 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적 현대성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시선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북방으로서의 만주에 대한 백석의 인식과 상상력은 당시 일본 제국이 순수한 처녀지로서의 만주를 상상하고 포섭하려고 했던 것과는 일정한 차이

10) 『조광』, 1943년 1월호.

가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4. 결론

일본 제국이 1936년 이후 조선인들에게 강요한 ‘내선일체’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만주행을 선택하였던 백석에게는 북방으로서의 만주라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앞대와 다른 북방의 존재를 읽고 상상하였던 백석이었기에 만주라는 공간을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주국’이 지배하던 만주를 만나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오족협화’의 만주국이 일본 제국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다종족국가라는 이전의 일본의 근대 제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요소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국의 확장을 위한 구실이고 위장이었던 것이다. 실망한 백석은 ‘만주국’의 국무원의 자리를 그만두고 만주의 별판을 향해 갔다. 하지만 만주 별판과 밀립 역시 제국주의 현대성이 서서히 장악하는 공간임을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제국주의 현대성에 대한 그의 지속적인 비판적 성찰은 만주의 밀립에서도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백석은 일체 글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주에서 발간된 『재만조선인시집』에 그의 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때 그가 관여하였던 만선일보에에서도 그의 글을 읽을 수 없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후 많은 만주의 문학가들이 참여하여 글을 썼던 특집에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는 태평양 이후 침묵을 통하여 일체에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 2012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 2012년 11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8일

11) 일본 제국이 만주를 순수한 처녀지로서 인식하면서 포획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프래신جت트 두아라의 『주권과 순수성』(한석정 역, 2008, 나남출판사)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효환, 2012, 「백석 시의 북방의식 연구」, 『비평문학』45.
김경일 외, 2004,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역사비평사.
서준섭, 2006, 「백석과 만주」, 『한중인문학연구』19.
신주철, 2009, 「백석의 만주 체류기 작품에 드러난 가치 지향」, 『국제어문』45.
왕염려, 2010, 「백석의 만주 체험 고찰」, 『민족문화사연구』.
이경수, 2010, 「백석의 기행시편에 나타난 장소의 심상지리」, 『민족문화연구』.
전월매, 2009,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시인 범주와 거류형 시인의 만주인식」, 『만주연구』9.
프레신깃트 두아라, 한석정 역, 2008, 『주권과 순수성』 나남출판

■ Abstract ■

Baik-Suk's Critique of Modernity in the Period of Manchuria

Kim, Jae-Yong

Baik-Suk, one of the most important poet under the Japanese Empire moved to Manchukuo at 1939 to escape from the censorship and oppression of Japanese Empire which emphasizes the 'One Body of Korea and Japan'. He criticized the policy of assimilation from Japanese colonial authority. At that time Manchukuo propaganda of ethnic harmony confirmed that Korean people is not Japanese but citizen of Manchukuo state. So many writers including poet Baik-Suk believed that the atmosphere of Manchukuo is better than Korean peninsula which is ruled directly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y. But after visiting Manchukuo, he comes to know that she is same with Korean peninsula even though the propaganda of Manchukuo. He recognized that Manchukuo is another variant of Japanese Empire. After knowing the oppression of Manchukuo, he resigned the official position of economic department of Manchukuo State and moved to countryside near the capital of Manchukuo. He also thought that the place of Manchuria is the space of authenticity against the global capitalism and imperialism. The Solon ethnic group who lived in the Manchuria is the most pure mankind. He wanted to know and see them who have keep the original state of living. He also translated the Russian novelist who lived Manchuria and wrote about the primitive and pure life of humankind. But after knowing the predicament of that ethnic group between global industrialization and primitive life, he tried to get another vision.

Key words : Manchukuo, Baik-Suk, ethnic harmony, modernity, authenticity, resistance, imperialism